



(미국사무소, 2026 June)

1 과학기술 R&D · ICT 연구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AI와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새로운 양자물질 탐색 기술

-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이 인공지능(AI)과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새로운 양자물질 탐색 기술을 개발함.
 - 관련 연구성과는 각각 *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(PNAS)*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됨.
- 첫 번째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해 수십 개 원자층으로 이루어진 적층 구조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함.
 - 이를 통해 유용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양자물질 후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음을 확인함.
-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양자컴퓨터가 새로운 양자소재를 스스로 설계 · 발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순환형 탐색 체계를 구현함.
 - 연구진은 해당 기술로 발굴된 소재가 차세대 양자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연구 결과, AI는 대규모 물질 시스템의 특성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예측하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ai-reveal-large-scale-quantum.html>

□ AI 보안 관리 방식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수학적 증명

-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(NIST)이 인공지능(AI) 보안 관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수학적 증명 결과를 발표함.
 - 해당 연구는 IEEE Security & Privacy에 게재됐으며, AI에 한 번

설정한 고정형 안전장치만으로는 모든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을 제시함.

- 특히 공격자가 새로운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적응형 공격 환경에서는 기존 보안 체계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분석함.
- 연구진은 일회성 구축 방식의 보안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가능한 보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- 또한 개발자와 운영기관이 새로운 취약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.
- NIST는 이번 연구가 AI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함.

※ <https://www.nist.gov/news-events/news/2026/06/nist-mathematical-proof-supports-transition-continuous-monitor-and-update>

□ 실험실 제조 암석으로 달 표면 변화 과정 분석

- 조지아공과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달 암석 환경을 재현해 달 표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.
- 해당 연구는 The Planetary Science Journal에 게재됐으며,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 흐름인 태양풍(solar wind)이 달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춤.
- 연구진은 지구와 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인 일메나이트(ilmenite)를 인공 태양풍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수행함.
- 실험 결과, 달 토양에서 발견되는 나노 크기의 철 입자(nanophase iron)가 생성됐으며, 이는 태양풍이 달 표면 풍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함.
- 이번 연구 성과는 달 표면의 형성 시기와 변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 향후 달에서의 물 생성 메커니즘 연구와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(Artemis Program) 등 달 탐사 임무에도 활용될 전망이다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lab-moon-scientists-lunar-explore.html>

□ 배터리 성능을 거의 완전히 복원하는 재활용 기술

- 코넬대학교 연구진이 폐(廢)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거의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개발함.
- 해당 연구는 Energy & Environmental Science에 게재됐으며, 전기화학 용액을 활용해 배터리 전극을 재생하는 새로운 공정을 제시함.
- 실험 결과, 재활용된 배터리는 원래 성능의 최대 95%까지 회복됐으며, 재사용 시 수명 연장 효과도 확인됨.
- 또한 새 공정은 기존 배터리 재활용 방식 대비 비용을 약 56%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.
- 이 기술은 배터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립 처리 방식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음.
- 연구진은 해당 기술이 리튬 등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, 공급망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6-battery-spent-lithium-ion-cells.html>

□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치료 후보물질 규제 절차 통과

- 미 국립보건연구원(NIH)이 개발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(Opioid Use Disorder, OUD) 치료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착수를 위한 주요 규제 절차를 통과함.
- 미 식품의약품청(FDA)은 미트라지닌(mitragynine)에 대한 임상시험계획(IND, Investigational New Drug) 신청을 승인함.
- 이에 따라 NIH는 미트라지닌의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임.
- 연구진은 NIH와 플로리다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정제 형태의 미트라지닌을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임.
-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는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.
- 연구진은 이번 임상시험이 새로운 중독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힘.

※ <https://www.nih.gov/news-events/news-releases/nih-research-clears-way-study-experimental-treatment-opioid-use-disorder>

2) 인문 · 사회분야

□ 교수 심사 과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

- 캘리포니아대학교와 휴스턴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교수 승진 및 정년 보장(tenure)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혁 프레임워크를 개발함.
 - 해당 연구는 Science Advances에 게재됐으며, 학문적 성과 외 요인이 교수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.
 - 연구에 따르면 인종, 성별, 육아·질병 휴직 여부 등 비학문적 요인이 승진 및 정년 보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(Structure), 권한 부여(Empowerment), 투명성(Transparency)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SET 프레임워크를 제안함.
 - 구조화는 심사 절차의 표준화, 권한 부여는 후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, 투명성은 평가 과정의 공개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점을 둠.
 - 이번 연구는 약 2,000명의 교수 후보자와 1만 건 이상의 외부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fairness-framework-faculty-tenure-decisions.html>

□ AI 의존에 따른 허위 정보 판별 능력 약화 가능성

- MIT 연구진이 인공지능(AI)에 대한 의존이 허위 정보 판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.
 - 해당 연구는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에서 발표됐으며, AI 챗봇의 도움을 받은 참가자들의 가짜 뉴스 탐지 정확도가 평균 21%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AI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독립적인 허위 정보 식별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됨.
 - 또한 4주 후 참가자들의 독립적 판별 능력은 연구 시작 전과 비교해 15%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‘AI 의존성의 역설(AI Dependency

Paradox)’ 로 설명함.

- 아울러 해당 현상은 계산기 사용이 산술 능력을, GPS 사용이 방향 감각을 약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함.

※ <https://techxplore.com/news/2026-06-consequences-ai-accurate-news.html>

□ AI 이용 확대 속 강력한 리더십의 중요성

- 텍사스 A&M대학교 연구진이 인공지능(AI)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과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, 조직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.
- 해당 연구는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에 게재됐으며, AI 시대 조직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리더십을 제시함.
- 연구진은 리더십, 직무 재설계(Job Crafting), 경력개발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며, 직무 재설계는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직원이 자신의 역할과 역량, 협업 방식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함.
- 연구 결과, AI 도입이 확대될수록 직원의 직무 재설계 역량이 조직 적응력 향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.
- 연구진은 효과적인 리더십이 직원의 직무 재설계를 촉진하고, 적응력과 협업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strong-leadership-key-ai-reshapes.html>

□ 박사과정 학생들의 AI 챗봇 활용 인식과 사용 행태 조사

- 피닉스대학교 연구진이 박사과정 학생들의 인공지능(AI) 챗봇 활용 인식과 사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.
- 해당 연구는 International Journal of AI in Pedagogy, Innovation, and Learning Futures에 게재됐으며, AI 챗봇의 교육적 가치, 학문적 진실성, 윤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함.
- 분석 결과, AI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AI 챗봇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AI 챗봇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.
- 연구진은 전공 분야에 따라 AI 활용 태도와 사용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나,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

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함.

※ <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doctoral-students-attitudes-ai-chatbots.html>

□ 인문학 연구의 정치화에 따른 학문적 기준 훼손 우려

- 하와이대학교 등 공동 연구진이 인문학 연구의 정치화가 학문적 기준과 연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.
 - 해당 연구는 Vanderbilt-WashingtonU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며,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 하락과 이념적 편향 논란을 검토함. 분석 대상에는 철학, 인류학, 사회학, 역사학, 문학, 음악학 등이 포함됨.
 - 연구진은 정치적 목표가 학문적 기준보다 우선시될 경우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함.
 - 특히 증거 기반 연구, 객관성, 개방적 탐구 등 전통적인 학문 원칙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.
 - 연구진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학문적 엄격성과 연구 윤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.
 - 또한 인문학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함.

※ https://phys.org/news/2026-06-politicization-humanities-scholarship-compromise-scholarly.html#google_vignette

2 과학기술 R&D · ICT 정책 동향

1) 과학기술 R&D · ICT 분야

□ 미·일 제네시스 미션 과학기술 협력 사업 출범

- 미국과 일본이 총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공식 출범함.
 - 이번 협력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제네시스 미션 (Genesis Mission) 체계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국제 공동연구 사업임.
 - 미 에너지부(DOE)와 일본 문부과학성(MEXT), 경제산업성(METI)이 공동으로 추진하며,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12곳과 연구

시설 1곳, 일본 주요 연구기관 12곳이 참여할 예정임.

- 양국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 협력을 위해 각각 5억 달러씩, 총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.
- 주요 연구 분야는 양자정보과학, 핵융합에너지, 바이오기술, 첨단 소재, 입자물리학, AI 기반 연구 자동화 등임.
-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력이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과 과학기술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articles/united-states-and-japan-announce-historic-1-billion-partnership-under-president-trumps>

□ 미 국립과학원, 기초연구의 사회·경제적 영향력 평가 강조

- 미국 국립과학원(NAS)이 기초연구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함.
- 마샤 맥넛(Marcia McNutt) NAS 회장은 연례 연설을 통해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함.
- 그는 대학 연구자 평가 시 논문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나아가 연구의 경제적·사회적 기여도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.
- 또한 학생 연구를 산업계 수요와 연계해 인재 양성의 실효성을 높이고,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과학 연구의 생산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함.
- 한편 맥넛 회장은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경계하는 동시에, 연구 공동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.

※ <https://www.aip.org/newsletter/0000019e-a833-dd6e-a7be-aeb3d80b0000>

□ 미 연방정부 지원 발명 기술 이전 현황 조사

- 미국 정부회계감사원(GAO)이 연방 연구비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발명의 기술이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.
-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, 기업, 비영리기관 등 연방 연구비 수혜 기관은 대부분의 발명에 대해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2020~2024 회계연도 동안 수혜기관들은 전체 발명 신고 건수의 약 56%에 대해 소유권을 선택했으며, 약 21%는 소유권을 포기한

것으로 집계됨.

- 소유권 포기의 주요 사유는 해당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- GAO는 의약품, 국방기술, 우주기술 등 수천 건의 혁신 성과가 연방 연구개발(R&D)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함.
- 한편 발명 신고와 상업화 활동 보고 등 기술이전 관련 행정 절차가 연구기관과 정부 모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.
- 이에 따라 GAO는 웹 기반 보고 시스템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상업화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.

※ <https://www.gao.gov/products/gao-26-107738>

□ 미 국립과학재단, 남극 연구 활동 지원 대규모 장기 계약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남극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운영 계약을 체결함.
- NSF는 KBR 서비스(KBR Services LLC)를 미국 남극 프로그램(USAP, U.S. Antarctic Program) 운영 지원 사업자로 선정,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년간임.
- KBR은 남극 내 미국의 3개 상설 연구기지와 연구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며, 연구 기획, 물류, 시설 관리, 과학 지원 등 종합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.
- NSF는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남극 지역에서의 전략적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함.
- 미국 남극 프로그램은 남극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과학 연구와 관련 물류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임.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commits-8b-sustain-us-scientific-presence-antarctica>

□ 미 에너지부의 핵융합 과학·기술 로드맵

- 미국 에너지부(DOE)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기 위한 「핵융합 과학·기술 로드맵(Fusion Science & Technology Roadmap)」 최종본을 발표함.
- 이번 로드맵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

전략으로, 과학기술 개발, 연구 인프라 구축, 전문인력 양성, 산업화 추진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함.

- 주요 목표는 2030년대 중반 핵융합 시범발전소와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.
- 핵융합은 태양과 별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기술로,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로드맵에는 에너지부, 산업계, 대학, 국립연구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됨.
- 미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, 핵융합 관련 국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임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articles/energy-department-releases-finalized-fusion-science-and-technology-roadmap-accelerate>

2) 인문 · 사회분야

□ 백악관 연방 연구비 지원 통제 추진, 과학계 반발

- 미 백악관이 연방 연구비 지원 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추진하면서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백악관 예산관리국(OMB)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.
-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 전문가 동료심사(peer review) 제도는 자문 기능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됨.
- 또한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, 연구비 사용 항목 중 학술지 게재비, 학회 참가비, 일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제한도 포함됨.
- 과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.
- 반면 행정부는 연구비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세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

설명함.

- 현재 해당 규정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, 과학계에서는 미국의 연구 경쟁력과 국제 연구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※ <https://www.aip.org/fyi/white-house-plan-to-take-over-federal-grantmaking-draws-criticism-from-science-groups>

□ 캘리포니아대, 정부 연구비 축소 대응 채권 발행 추진

-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(UC)가 연방정부의 연구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과학 연구 지원 채권 발행을 추진함.
- 해당 채권 발행안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.
- 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 및 일부 연구 지원 사업 폐지에 대응하는 조치로 마련됨.
- 최근 연방 연구비 감소는 캘리포니아 내 대학과 연구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채권 발행이 승인될 경우 대학, 연구소, 민간 연구 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.
- UC는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와 혁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.
-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연구비 감소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 공백을 주(州) 차원에서 보완할 계획임.

※ <https://edsources.org/2026/trump-administration-cuts-research-funding/759543>

□ UC 산타크루즈, 과학 정책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모색

- UC 산타크루즈가 미국 과학정책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「공공의 과학(The Public's Science)」 사업을 출범함.
- 해당 사업은 대학 내 과학정의연구센터(Science & Justice Research Center)와 고등연구소(Institute for Advanced Study) 산하 과학·기술·사회적가치 연구소(Science, Technology, and Social Values Lab)가 공동 주관함.
- 연구진은 과학 연구가 단순히 공공 재원의 지원을 받는 수준을

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- 이 사업은 과학 연구를 ‘공공의 과학(Public’s Science)’ 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핵심 가치로 연구 우수성, 사회적 정의, 투명성, 민주적 참여를 제시함.
- 연구진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대중의 신뢰 저하와 반(反)과학 정서 확산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함.
- 또한 기존 연구지원 체계가 공공 책임성과 시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.

※ <https://news.ucsc.edu/2026/05/the-publics-science-initiative/>

□ AI 시대,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시기

-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인공지능(AI) 시대가 사회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최근 열린 스탠퍼드 워크숍에서는 AI가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됨.
- 연구자들은 AI를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, 인간 행동 연구, 사회 현상 예측 등을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.
- 사회과학자들은 AI를 단순한 연구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음.
- 연구진은 인간 행동, 노동시장, 정치제도,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- 또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함.
- 전문가들은 AI 발전이 공학자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새로운 연구 기회와 사회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.

※ <https://www.gsb.stanford.edu/insights/why-ai-makes-most-exciting-time-be-social-scientist>

□ 미국 ISSR 여름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

- 미국경제학회(AEA) 산하 사회과학연구소(ISSR)가 2026년 여름

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함.

- 해당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(Univ. of Massachusetts Amherst)에서 개최되며,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량적·정성적 연구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임.
- 참가 대상은 대학원생, 연구자, 교수,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가 등으로, 사회과학 연구 역량 강화와 최신 연구기법 습득을 주요 목표로 함.
- 참가자들은 통계 분석, 데이터 활용, 질적 연구 설계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음.
- ISSR은 연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술 연구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함.

※ <https://www.aeaweb.org/news/issr-training-methodology-workshops-june-3-2026>

3 벤처·기술사업화 동향

□ 미 에너지부 태양광 분야 중소기업 혁신 지원

- 미 에너지부(DOE)가 태양광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연구(SBIR)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(STTR)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- 두 프로그램은 고위험·고혁신 연구개발(R&D)과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임.
- 프로그램은 에너지부 과학국(Office of Science)이 관리하며,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력망 연계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태양광 제조, 지역사회 태양광(Community Solar)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.
- 에너지부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, 국립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회(Technology Transfer Opportunity, TTO)도 제공하고 있음.
- 에너지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핵심 지원 수단이라고 설명함.

※ <https://www.energy.gov/cmei/systems/solar-topics-small-business-innovation-research-and-smal>

□ AI 붐, 기존 스타트업 자금 조달 환경 악화

- 인공지능(AI)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챗GPT 등장 이전에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.
- 시장조사업체 피치북(PitchBook)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 기업 857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최근 3년간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집계됨.
- 2021년에 마지막으로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평균 68% 하락했으며, 2022년에 마지막 투자를 유치한 기업 역시 평균 52%의 가치 하락을 기록함.
- 한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인정받았던 220개 이상의 기업은 현재 ‘몰락한 유니콘(Fallen Unicorn)’으로 분류되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AI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벤처투자 자금이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비(非)AI 분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함.

※ <https://www.cnn.com/2026/06/01/ai-startup-valuations-pre-chatgpt.html?qsearchterm=startup>

□ 미국 정부, 오픈AI 지분 보유 방안 논의

- 미국 정부가 생성형 AI 기업 오픈AI(OpenAI)의 지분 보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관련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(Sam Altman) 오픈AI 최고경영자(CEO)와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, 최근에도 올트먼 CEO는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AI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.
- 논의안에는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일부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.
- 해당 구상은 오픈AI가 올해 4월 제안한 공공부(公共富) 펀드(Public Wealth Fund)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 펀드는 장기 자산 투자 수익을 활용해 AI 산업 성장의 혜택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업계에서는 정부의 첨단 AI 기업 지분 보유가 현실화될 경우, 미국의 AI 산업 육성 전략과 기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.

※ <https://www.cnn.com/2026/06/05/trump-open-ai-altman-stake.html?qsearchterm=startup>

□ 미 국립과학재단, SBIR/STTR 프로그램 재가동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첨단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5,000만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혁신연구(SBIR)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(STTR)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함.
- SBIR/STTR 프로그램은 미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(R&D)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연방 연구지원 사업임.
- NSF는 이와 함께 차세대 과학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,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지원 대상에는 차세대 연구장비, 혁신적 실험 플랫폼, AI 기반 과학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 등이 포함됨.
- SBIR/STTR 프로그램은 기업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, 참여 기업은 지식재산권(IP)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음.
- 지원 규모는 1단계(Phase I) 최대 30만 5,000달러, 2단계(Phase II) 최대 125만 달러임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deploys-250-million-restart-small-business-innovation>

□ 미 국립과학재단, 기술 상용화 ‘테크 액셀러레이터’ 출범

- 미 국립과학재단(NSF)이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한 ‘테크 액셀러레이터(Tech Accelerators)’ 프로그램을 출범함.
- 해당 프로그램은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성 있는 기술과 창업·사업화 기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NSF는 특히 민간 투자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.
- 주요 지원 분야는 농업, 첨단소재, 해양기술, 과학 장비 및 연구 도구 기술 등임.
- NSF는 유망 기술이 연구실 단계에서 사업화 직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하는, 이른바 ‘죽음의 계곡(Valley of Death)’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.
- 지원 대상 연구팀은 특허 확보, 시제품 개발, 기술 실증, 창업, 고객 확보 등 사업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.

※ <https://www.nsf.gov/news/nsf-launches-tech-accelerators-initiative-speed-key>